

日本の 現存 朝鮮本에 대하여

藤 本 幸 夫

富山大

日本現存朝鮮本について

要 約

我国に善本を含む多数の朝鮮本の存在することは周知の事実である。それらが何時、如何に将来されたか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それは大きく四時期に分けられる。

1. 室町時代末以前
2. 豊臣秀吉時
3. 徳川時代
4. 明治時代

第一の時期は、応神朝に百濟博士王仁によって、『論語』『千字文』が齎されたというのが最も早く、以後渡来人と共に種々の書籍が来ている。仏教が伝来されたといわれる頃(552)よりは、仏典も伝えられ、奈良時代には新羅写本の仏典を校正の拠所にしたという記録もある。室町時代には、幕府や諸豪族が交易、求請によって書籍を求め、現存するものとしては、初雕大藏經、再雕大藏經がある。両者共に多く伝存し、特に前者は本国にも稀なものである。川瀬一馬氏によれば、五山版の中にも朝鮮本を藍本にしたと思われるものと云う。しかしこの時期のもので現存するのは、上記大藏經を除いては、「大宰大貳」印のある外典等数部にすぎない。

第二の時期は、豊臣秀吉の朝鮮侵略時、(1592, 97)の略奪本で、かなり歴大な数にのぼり、種類も雑多であるが、その多くが各処に、比較的よく保たれている。往々古刊本の散佚が秀吉のせいに帰せられる。この古刊本に高麗版や15世紀刊本を含めるとすれば、甚だ当を得ていないと思われる。多くの官衙や寺刹が焼かれ、書籍が多数失われたことは紛れもない事実である。しかし、秀吉略奪本やその当時の朝鮮の本のあり方等を検討してみれば、当時現存していたのは、大部分が嘉靖一萬曆刊本、つまりせいぜい、60・70年以前のものである。例えば1544年に100部刊行された『朱子語類』は、30年後には殆んど見当らず、完帙で現存するのは我国の一部のみである。又秀吉時の略奪本と覚しきものと調べても高麗版は数部、15世紀刊本も極少数である。

第三の時期は、秀吉によって断絶された朝鮮との国交が修復された、慶長12年(1607)以後である。徳川時代を通じて朝鮮との折衝に当たったのは、対馬の宗家であり、朝鮮本はここを通じてのみ我国に入り得た。宗家に現存するのは800余冊で尚多くを失っている。現存本の殆んどが17世紀刊本で、それ以前のは数部にすぎない。元来朝鮮と関係も深かったので、古刊本もあった様であるが焼失したらしい。宗家所蔵本は、当時官学を掌っていた林家に貸出される等珍重された。

第四の時期は、1910年の所謂日韓合併以降に東京の古本商がソウルに行って数万冊を買い入れたり、好書家、学者が購入したものである。部数、冊数からすれば、この時期のものが最も多いが、特に鑑識眼のある人々によって購入されたもの以外は、大体18, 9世紀の刊本である。

日本에 들어온 朝鮮本을

- ① 室町時代末 以前(—1573)
- ② 豐臣秀吉 侵略 때 (1592—97)
- ③ 德川時代 (1603—1868)
- ④ 明治以後 (1868—)

의 四期로 나누어 概述한다. ①은 대충 그렇게 잡아 본 것이나 이 시기에 屬하는 것으로는 大藏經 이외에는 거의 없으므로 이와 같이 總括한다.

1. 室町時代末 이전

應神朝에 百濟博士 王仁이 「論語」와 「千字文」을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러나 그 뒤로는 예를 들어 「新撰姓氏錄」에 따르면 欽明朝 (540—71)에 和藥使主 父子가 內典・外典 藥書, 기타 294卷을 전했다는¹⁾ 등 이와같은 기록이 상당히 많다.

또 직접 新羅로 유학한 僧侶에 의하여 가져온 것도 상당히 많은 수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白鳳時代 (天武, 持統, 文武朝, 672—707)에는 史料에 비추어 보는 한, 唐으로 갔던 것은 두사람 뿐인 데 대하여, 新羅로의 留學僧은 열세사람에 이르렀다고 한다.²⁾ 이 시기에 新羅에서는 저 유명한 元曉・義湘 등이 활약하고 있었고 따라서 留學僧들이 빈손으로 귀국하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奈良 大安寺의 僧 審祥은 740년 10월에 苦草山麓 金鍾寺에서 「華嚴經」을 강의하였다. 그는 新羅 華嚴宗의 開祖인 義湘의 死後 (702) 新羅에 유학하여 그 문하생으로부터 華嚴을 배워가지고 왔는데 審祥의 藏書 70부 645권중 新羅僧의 著述 50부 132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 그 가운데는 元曉의 저술이 32부 78권에 이르른다고 한다.³⁾

日本에는 聖德太子 (574—622) 이후의 古寫經이 많이 전해져 보존되고 있다. 三國, 즉 高句麗・百濟・新羅로부터 佛教가 전해지고 사람들의 往來와 더불어 당연한 일로 寫經類도 招來되었을 터이나 現存하는 多量의 古寫經 中에서는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三國의 寫經에 대한 實態를 모르는 데다 당시 中國・日本・한국이 더불어 用紙로는 麻紙를 많이 사용하였고 또 書風도 같았으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華嚴判定記」⁴⁾ 卷第五의 卷末에

(가) 延曆二年 (783) 十一月廿三日於東大寺與新羅正本自校勘畢以此善根生生之中 殖金剛種斷一切障共諸含識入無導門

(나) 以延曆七年 (788) 八月十二日與唐正本相對校勘取舍 得失楷定此本後學存意所察耳自後諸 卷亦同此矣更不錄勘年日等也

라고 있어 新羅經의 존재가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刊記가 있는 것은 매우 드물다.

1) 和藥使主

出自吳國主照淵孫智聰也 天國排開廣庭天皇諡欽明御世 隨使大伴佐比古 持內外典 藥書 明堂圖等百六十四卷 佛像一軀 伎樂調度一具等入朝 男善那使主 天萬豐日天皇諡德孝御世 依獻牛乳 賜姓和藥使主 奉度本方書一百卅卷 明堂圖一 藥白一 及伎樂一具 今在大寺也 「新撰姓氏錄」 卷廿二 在京諸番下

2) 田村圓澄, 「古代朝鮮佛教と日本佛教」 吉川弘文堂, 1980.

3) 註 2와 같다.

4) 築島裕, 「平安時代語新論」, 東京大學出版會, 1969.

高麗時代는 書籍舖 등을 설치하거나 하여 印刷가 매우 盛行하였다. 특히 大藏經은 세번이나 刊行되었고 日本에도 수많이 들어왔다. 더군다나 助雕本은 韓國에는 거의 없지만 日本에는 상당한 수가 現存한다. 이같은 室町幕府・寺刹・地方豪族이 요청하여 入手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및 韓國에는 高麗時代의 刊行物은 大藏經 이외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禪宗關係의 五山版⁵⁾ 중에는 朝鮮版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고 하나 確證은 없다.

흥미로운 것은 高麗時代 사람으로 「三國遺事」의 撰者인 僧 一然(1206—89)이 撰한 「重編曹洞五位」二卷이 최근 閔泳珪교수에 의하여 밝혀진 일이다. 이 책이 언제, 어떻게 하여 日本으로 傳來되었는지 그 經緯를 전혀 알길이 없으나 書寫가 몇번이나 거듭되었던 모양으로 錯簡・脫文이 여러 곳에 있으며 延寶八年(1680)에 처음으로 木版本으로 간행되었다. 撰者 晦然이 어느 나라의 僧侶인지도 모르는 채 입혀져 왔으나, 晦然이 유명한 一然의 初名이라는 것이 閔교수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다. 이와 같이 혹은 撰者未詳으로 묻혀 있는 것이 이밖에도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된다.

室町時代에 日本으로 전해진 外典으로서 남아 있는 것에는 大內氏 舊藏으로 일컫는 「續三綱行實圖」와 「駱賓王集」등이 있다.

2. 豐臣秀吉의 侵略때

한국民族을 塗炭의 괴로움에 빠뜨리고 또 日本 將兵과 民衆들마저 괴롭혔던 豐臣秀吉의 朝鮮侵略은 日本側에 있어서는 文化史的으로 큰 意義를 지니는 것이었다. 印刷文化面에서 본다면 活字印刷道具를 가져다 주었으며 아마 工人도 拉致되어 왔던 모양이고, 文祿에서 寬永까지 약 50년 동안 걸쳐 이른바 古活字版⁶⁾ 時代를 일으켰다. 그러나 活字에는 한번에 많은 것을 인쇄할 수 없다는 缺點이 있었고, 그 무렵부터 있는 町人文化의 擡頭와 더불어 일어난 需要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 다시금 從前의 木版印刷로 되돌아가게 된다. 日本의 出版文化에 끼친 영향은 지극히 큰 것이 있다. 또 和書의 表紙나 版式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즈음에 여러 大名과 配下の 醫人・儒人・僧侶들이 들여온 朝鮮本은 尨大하다. 다만 日本人의 藏書印이나 識語 또는 기록이 全無한 상태와 같아서 누가 언제 어떤 書籍을 가져왔는지 거의 알 수가 없다. 從軍한 여러 大名들은 西國, 즉 九州・中國・四國地方에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明治 이후에 流出되어 東京에 集中되었고 오늘날 그 地方에는 殘存하는 것이 드물다.

한편, 德川家康의 藏書 중에는 朝鮮本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出兵은 하지 않았지만 본래 學問을 즐겨했고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蒐書에 힘썼으며 또 여러 大名들로부터의 獻本도 많았던 것 같다. 家康이 죽은 후 江戶에 있었던 것은 紅葉山文庫에 두어져 현재는 宮內廳 書陵部 및 內閣文庫에 전해지고 있으며, 家康이 駿府에 隱居한 後 所藏하였던 것은 그의 死後 거의가 尾張・水戶・紀州로 5:5:3의 비율로 配分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駿河御讓本⁷⁾이라 일컫는 것이다. 더우기 尾張藩主 德川義直은 유달리 學問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質의으로도 충실해 있었다고 하는데 尾張家에는 元和三年(1617)에 물려 받았을 때의 目錄이 있고, 그것에는 「363部 2826冊」이라고 되어 있다. 이밖에 기록에서 빠진 것도 있고 하여 실제로는 「377部 2839冊」이라고 한다. 尾張家의 御讓本은 明治 5年(1872)에 拂出된 것을 제외하고는 現存하는데, 현재 朝鮮本은 약 140部 1400冊이다. 책의 수로 하더라도 尾張家 御讓本の 절반을 차지하며, 家康에게 朝鮮本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알 수 있다. 이것에 관하여 나는 도요다財團의 助成을 받아 그 調査를 끝마쳤기에 가까운 將來에 研究

5) 川瀬一馬, 「五山版의 研究」, 日本古書籍商協會, 1970.

6) 川瀬一馬, 「古活字版之研究」, 日本古書籍商協會, 1968.

7) 川瀬一馬, 「駿河御讓書의 研究」, 日本古書籍商協會, 「書誌學」, 3~4, 1934.

書를 公刊할 생각이다. 현재 이것은 名古屋 시내의 蓬左文庫에 수용되어 있다. 水戸 德川家の 것은 「彰孝館 圖書目錄」을 남겨둔 채 戰災를 만나 現在는 圖書의 절반 이하가 보존되고 있을 뿐이다. 紀州 德川家の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 때의 것은 16세기경 活字本・本版本이지만 韓國에도 없는 귀중한 것이 적지 않다. 또 보존이 좋아 거의가 完秩로 전해지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寫本이 적다는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 時代에 살았던 菟書家 眉巖 柳希春의 日記를 보면 寫本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당시의 書籍의 刊行部數가 적었던 데다 또 高價였던 점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겠지만 日本에 現存하는 것이 적다는 것은 略奪時에 取捨選擇이 있었던 것이라고 推量된다. 이들 책에는 國王으로부터 下賜된 이른바 內賜本(또는 宣賜本)이 있으며, 이것에 의하여 그 책의 刊年을 결정할 수 있어 朝鮮印刷文化 연구상 日本의 現存本은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예를 들어 河西 金麟厚와 같은 저명한 學者의 藏書印도 있는데 同一人의 舊藏書가 여러 군데로 흩어져 現存하는 일이 있다. 이것은 江戸 초기 日本에 왔던 通信使가 大阪의 書肆에 朝鮮本이 많이 나돌고 있는 것을 目賭하고 놀라고 있으며, 이와 같이 판과 나간 결과로 散在하게 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들 書籍에는 내용적으로 보면 朱子學 關係書가 많고, 특히 林羅山⁸⁾은 그 研究에 이것들을 重用하고 있다. 朱子學, 즉 江戸幕府의 官學의 성립과 隆盛은 그 初期에 있어서 이들 朝鮮本을 빼 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서 和刻된 것이 상당히 있으며, 그것들이 覆刻일 때는 活字의 형태나 版式으로 推定하여 朝鮮本을 覆刻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覆刻이 아닌 경우 中國人의 撰에 의한 것은 中國本을 原本으로 한 和刻인지, 朝鮮本을 原本으로 한 和刻인지 그 구별이 몹시 곤란하다. 그러나 17세기의 漢籍과刻本 중에는 朝鮮本을 藍本으로 한 것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中國本의 경우는 刻工의 이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되고 있으나, 朝鮮本의 경우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朝鮮의 경우 中央의 官版 이외의 것에는 刻工의 이름이 版心에 새겨져 있는 것이 많아 이것을 연구함으로써 刊年이나 刊行地方을 상당히 밝혀낼 수 있으므로 나는 현재 이것을 하고 있다.

또 「金鰲新話」・「三綱行實圖」・「剪燈新話句解」⁹⁾・「五倫行實圖」 등은 江戸時代의 假名草子¹⁰⁾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때의 朝鮮本으로 本草・醫書關係가 많이 所藏되어 있었던 것은

養安院¹¹⁾ 藏書(京都의 醫師 曲直瀬家).

聿脩堂藏書(京都의 醫師 多紀家)

이나 모두 散逸되고 없다.

朝鮮本은 大型이며, 花紋이 있는 기름을 먹인 黃表紙, 五六綴인데 保存이 좋은 文庫나 圖書館에서는 어느 정도 改裝이 되어 있어 天地가 切斷되거나 改裝되거나 하여 있다. 또 表紙의 襟接에 그 책의 刊行보다 이전의 古文書나 殘葉등이 사용되는데, 그것들도 廢棄되어 있는 수가 많아 유감스럽다.

3. 江戸時代

豐臣秀吉의 侵略 이후 난절상태에 있던 日朝關係는 慶長 12년(1607)에 첫번째 朝鮮通信使가 와서 和睦이 성립되었고 文化 8년(1811)에 이르기까지 열 두번의 通信使가 來日하였다. 江戸時代에는

8)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 朝鮮」, 東京大學出版會, 1965.

9) 久保得二, 「剪燈新話と東洋近代文學に及ぼせる影響」,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 「臺北帝國大學 文政學部 文學科研究年報」, 第一輯, 1934.

10) 中村幸彦, 「朝鮮說話集と假名草子——「五倫行實圖」を主に——」, 朝鮮學會, 「朝鮮學報」, 49, 1968.

11) 大塚鑑, 「朝鮮備忘——附養安院書目——」, 朝鮮學會, 「朝鮮學報」, 48, 1968.

朝鮮과의 交渉은 전적으로 對馬의 宗家が 그 所任을 맡았다. 현재 宗家の 藏書¹²⁾는 對馬 嚴原의 長崎縣立 對馬 歴史民俗資料館에 寄託되어 있는데, 158部 804冊에 이른다. 이곳에는 天和 3년(1685) 現在の 目録이 있으며 이것을 보더라도 朝鮮本이 아주 많다. 現存本에 대하여 말하면 中國本도 있으나 朝鮮本쪽이 훨씬 더 많다. 「天和三年目録」과 現存書를 비교하면 朝鮮本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江戸官學의 종가인 林家로 상당한 수를 貸出하고 있기 때문이며, 文政九年(1826)의 「林家行 出入帳」에 그 書名이 記載되어 있다. 中國에서 간행되는 朱子學 關係書는 長崎를 통하여 幕府¹³⁾가 購入했고 그것들을 林家는 자유로이 閱覽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朝鮮本을 빌어 읽고 있었다는 것은 朝鮮儒學界의 動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만 理論的인 것을 그것으로부터 배워들었는지 어떤지에 대하여는 專門家의 연구를 기다리고 싶다.

이밖에 新井白石에게 빌어 주거나 湯島の 聖堂에 獻納하거나 하고 있다. 現在 内閣文庫에 있는 「朱子語類」51冊은 아마 본래 宗家本이었을 것이며, 湯島の 聖堂에 헌납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宗家藏本の 거의가 17세기의 刊本이며 이것도 또한 그런데다 「天和三年目録」에도 51冊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朱子語類」¹⁴⁾ 140卷을 51冊으로 나눈 것은 극히 특이한 일이라는 것도 그 根據의 하나다.

江戸時代 朝鮮本은 宗家를 통하여서 밖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것으로는 宗家が 어떻게 하여 入手했느냐가 분명치 않다. 당시 朝鮮은 公式으로는 서적을 日本에 내보내지 않았으므로 아마 通信使가 贈物로 지참했거나 또는 宗家が 釜山 또는 倭館에 보낸 文書 가운데에 무슨 무슨 책을 구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現地에서 譯官들을 통하여 비공식으로 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 明治時代

明治로 접어들면 韓日合併後 古書商들이 직접 韓國으로 가서 數萬卷을 購入했다고도 하고 또 現地に 있던 日本人學者들도 많이 구입하고 있다. 현재 개인의 文庫로서 큰 것으로는

- (가) 阿川文庫(東京大學)
- (나) 今西文庫(天理大學)
- (다) 金澤文庫(駒澤大學)
- (라) 河合文庫(京都大學)
- (마) 佐藤文庫(大阪府立圖書館)
- (바) 前間文庫(東洋文庫)
- (사) 三木文庫(武田製藥株式會社, 杏雨書屋).

이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日本의 現存 朝鮮本에 대한 소개를 마치기로 한다. (孫永壽 옮김)

12) 岡村繁編, 「對馬藩現存漢籍分類目録前編」, 九州大學文學部, 1980.

藤本幸夫, “宗家文庫藏朝鮮本に就いて——「天和三年目録」と現存本を對照しつつ——”, 朝鮮學會, 「朝鮮學報」99, 100, 1981.

13) 大庭脩, 「江戸時代における 店船持渡書の研究」,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 1967.

14) 藤本幸夫, “朝鮮版「朱子語類巧」”, 「富山大學人文學部紀要」, 五, 1982.